2024년 7월 25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Macro Alert

한국 2Q GDP 역성장, 예상 부합했으나 설비투자 우려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국 2분기 GDP는 전기대비 -0.2%로 역성장

한국 2분기 GDP가 전기대비 -0.2%(전년비 2.3%)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이는 당사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로, 지난 1분기 성장 호조(전기대비 1.3%)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내수(-0.1%p)와 순수출(-0.1%p) 기여도가 모두 부진했다. 지난 1분기 일시적으로 늘었던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1.1% 하락하며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며 전기대비 -2.1% 감소했다. 민간소비도 승용차, 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정부소비가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하며 경기 하단을 지지했고, 수출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했으나, 원유 및 석유제품 단가 상승으로 수입이 1.2% 증가해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부진한 설비투자가 내수 회복을 제한할 소지

건설투자 기저효과로 인한 2분기 전기비 마이너스 성장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설비투자가 생각보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내수 회복을 제한할 수 있어 보인다.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고,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한국 자본재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높은데,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과거처럼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설비투자 확대 속도를 조절해가며 수익성 제고에 힘쓰고 있어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건설수주 부진 감안 시 건설투자도 위축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개선되고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을 토대로 하반기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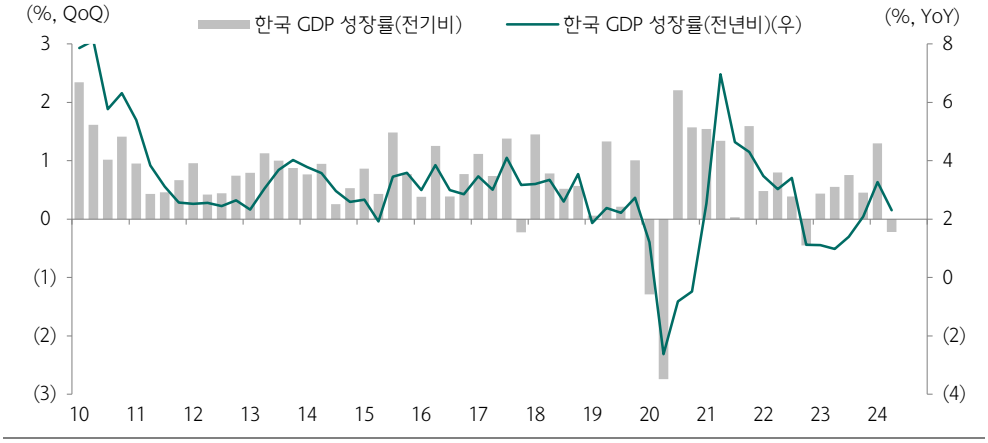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유지

한국 경제는 연간 2.4% 내외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부문 주도의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클 진정, 자본재 수입 부진 등으로 수입 증가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IT 수요 확대 등으로 꾸준히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며 상품수지 흑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반기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의 완만한 반등 가능성도 수출 호조를 뒷받침한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16개월 연속 상승해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효하다. 단, 국내 물가 안정에도 불구 주택관련대출 등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내수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수 있다. 하반기 한국 경제는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하다.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RA 김형균 hyungkyun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 한국 2Q GDP 전기비 -0.2%, 전년비 2.3%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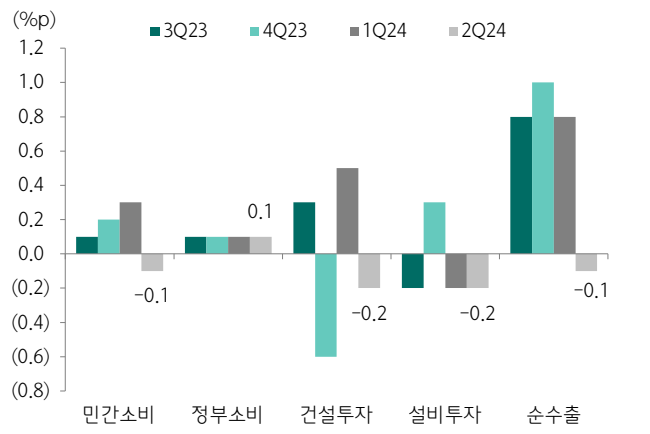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도표 2. 한국 GDP 세부항목 추이

		23.2Q	23.3Q	23.4Q	24.1Q	전기대비
국내총생산	전년비	1.4	2.1	3.3	2.3	-1.0
	전분기비	0.8	0.5	1.3	-0.2	-1.5
최종소비지출		0.2	0.4	0.7	0.0	-0.7
	민간소비	0.1	0.4	0.7	-0.2	-0.9
	정부소비	0.3	0.5	0.8	0.7	-0.2
총 고정자산투자		0.5	-1.0	1.1	-1.3	-2.4
	건설투자	1.9	-3.8	3.3	-1.1	-4.4
	설비투자	-2.0	2.8	-2.0	-2.1	-0.1
	지적재산생산물투자	0.8	-0.2	0.8	-0.5	-1.3
재고증감		-0.3	-0.4	-0.3	0.3	0.6
수출		1.9	3.9	1.8	0.9	-1.0
수입		0.3	1.6	-0.4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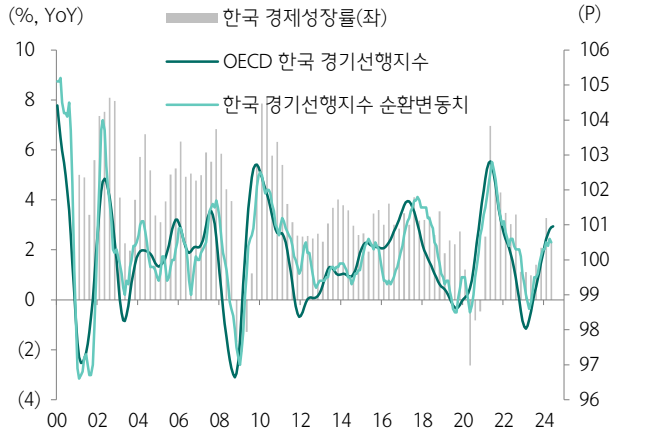
주: 1) 항목별 성장률은 전분기비 기준, 2)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자료: Thomson Reuters, CEIC, 하나증권

도표 3. 국내 지출별 GDP 전기대비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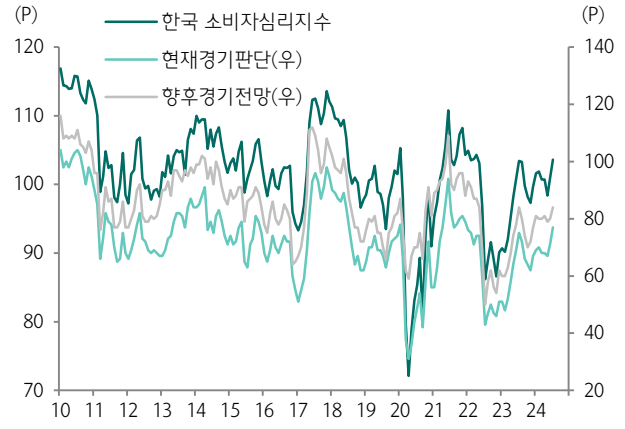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도표 4.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16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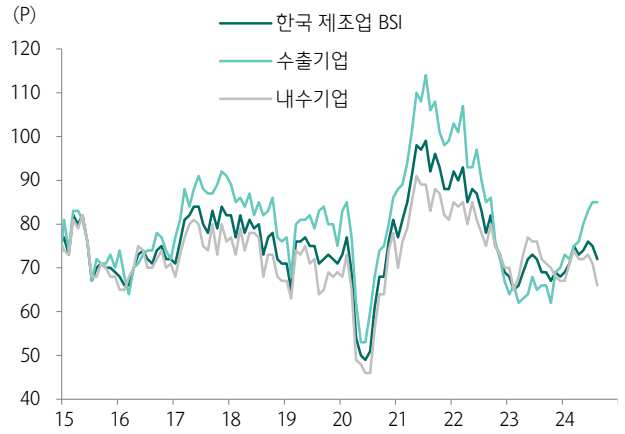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도표 5. 한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재차 상승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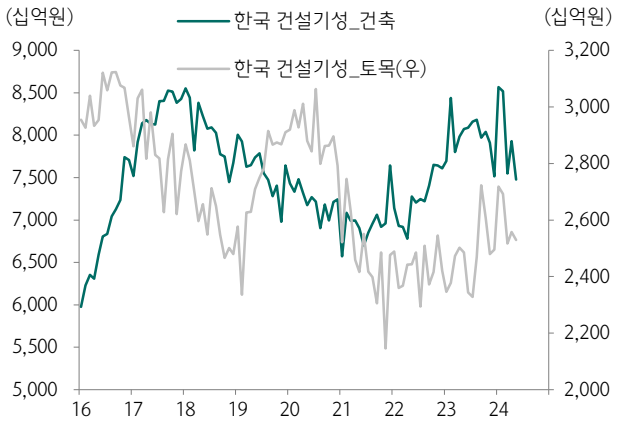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도표 6. 기업 심리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차별화 현상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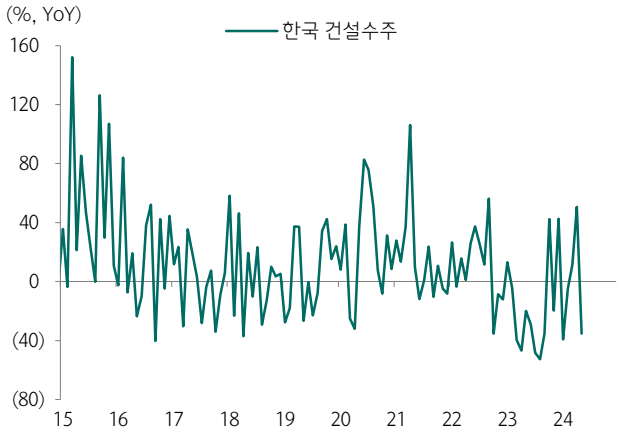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7. 연초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건설기성은 다시 줄어드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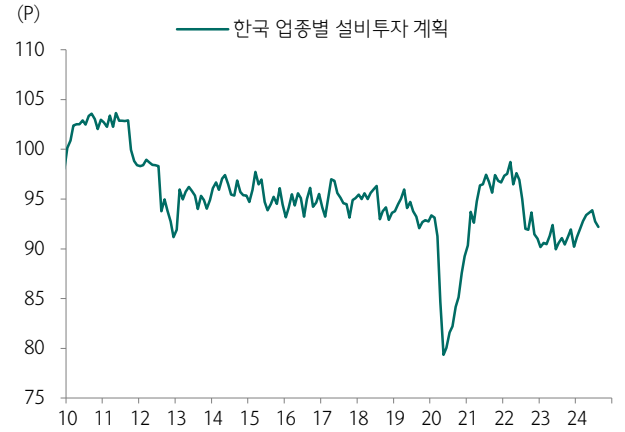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도표 8. 건설수주 부진 감안 시 건설투자 증가 이어지기 힘들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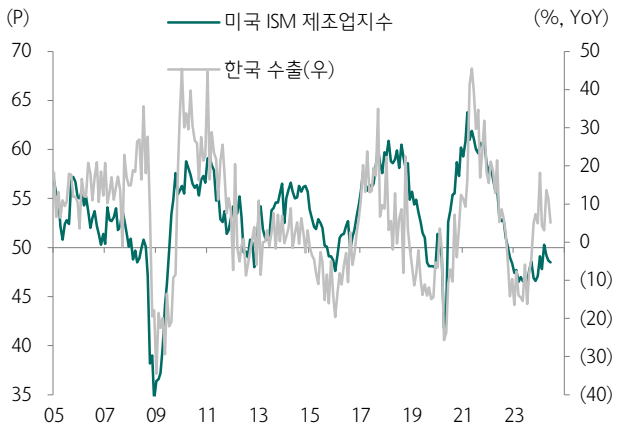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도표 9.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은 답보 상태



주: 전체 업종 평균 기준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10. 글로벌 제조업 업황 회복되며 한국 수출 호조 지속될 전망



자료: Thomson Reuters, CEIC,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이벤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BOJ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7/30-31	10:30	★★★	0.25%로 금리 인상 가능성. 추가 긴축에 대한 스탠스 확인
미국 7월 FOMC	7/31-8/1	03:00	★★★	물가에 대한 평가 및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여부 주목
BOE 7월 통화정책회의	8/1	20:00	★★★	금리 동결 전망. 높은 서비스물가 상승률에 대한 코멘트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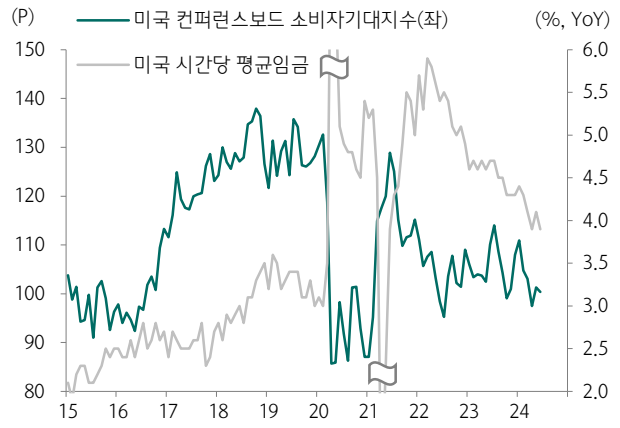
주: 날짜와 시간은 한국기준
자료: 하나증권

다음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지표	날짜	시간	기준	중요도	예상치	이전치
미국 7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7/29	23:30	기준=0	★★	-14.2	-15.1
일본 6월 실업률	7/30	08:30	%	★★	--	2.6
독일 2분기 GDP P		17:00	%, YoY	★★	--	-0.9
유로존 7월 소비자기대지수 F		18:00	기준=0	★★★	--	-14.0
유로존 7월 경기기대지수		18:00	기준=100	★★★	--	95.9
유로존 2분기 GDP P		18:00	%, YoY	★★★	0.5	0.4
독일 7월 소비자물가 P		21:00	%, YoY	★★	--	2.2
미국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22:00	%, MoM	★★	--	0.2
미국 5월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22:00	%, MoM	★★★	--	0.4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23:00	기준=100	★★★	99.8	100.4
한국 6월 소매판매	7/31	08:00	%, YoY	★★	--	-3.1
한국 6월 광공업생산		08:00	%, YoY	★★	--	3.5
일본 6월 소매판매		08:50	%, YoY	★★	--	2.8
일본 6월 광공업생산		08:50	%, YoY	★★	--	1.1
일본 7월 기준금리		10:30	%	★★	0.25	0.10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10:30	기준=50	★★★	--	49.5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		10:30	기준=50	★★★	--	50.5
일본 6월 주택착공건수		14:00	%, YoY	★★	--	-5.3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P		18:00	%, YoY	★★★	--/--	2.5/2.9
미국 7월 ADP 취업자수 변동		21:15	천명	★★★	170K	150K
미국 6월 미결주택매매		23:00	%, MoM	★★	1.5	-2.1
미국 7월 기준금리	8/1	03:00	%	★★★	5.50	5.50
한국 7월 수출/입		09:00	%, YoY	★★★	15.4/11.5	5.1/-7.5
일본 7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F		09:30	기준=50	★★	49.2	50.0
중국 7월 Caixin 제조업 PMI		10:45	기준=50	★★★	--	51.8
독일 7월 HCOB 제조업 PMI F		16:55	기준=50	★★	42.6	43.5
유로존 7월 HCOB 제조업 PMI F		17:00	기준=50	★★	45.6	45.8
영국 7월 S&P Global/CIPS 제조업 PMI F		17:30	기준=50	★★	51.8	50.9
유로존 6월 실업률		18:00	%	★★	--	6.4
영국 8월 기준금리		20:00	%	★★★	5.25	5.25
미국 7월 S&P Global 제조업 PMI F		22:45	기준=50	★★	49.5	51.6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		23:00	기준=50	★★★	49.0	48.5
한국 7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8/2	08:00	%, YoY	★★★	--/--	2.4/2.2
미국 7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21:30	천명	★★★	188K	206K
미국 7월 실업률		21:30	%	★★★	4.1	4.1
미국 7월 시간당 평균 임금		21:30	%, MoM	★★★	0.3	0.3
미국 6월 내구재 주문 F		23:00	%, MoM	★★	--	0.1
미국 6월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 F		23:00	%, MoM	★★	--	-0.6

주: 1) 국내 지표는 당사 전망치, 날짜와 시간은 한국 기준, 2)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은 약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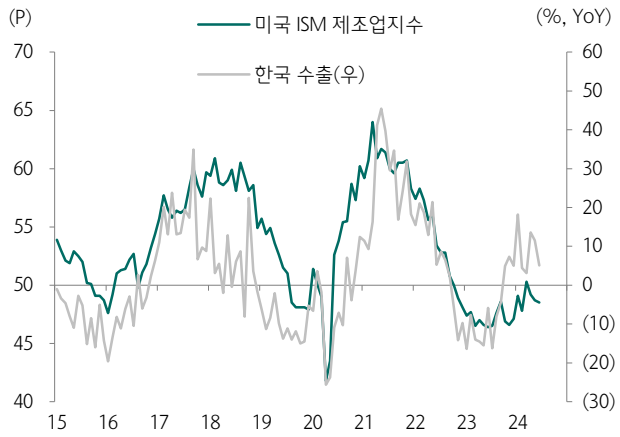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7/30): 99.8(E)/100.4(P)

미국 7월 시간당 평균임금(8/2): 0.3(E)/0.3(P)

-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은 약화될 전망
-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는 99.8P 예상. 기업들의 구인수요가 약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고용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은 약화될 듯. 가계의 신용여건도 서서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 소비경기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7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비 0.3% 증가할 듯. 미국 고용시장은 실업자 당 빈 일자리 수가 1.22개로 노동수요 우위 국면에 있어 임금상승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소지. 다만 노동자들의 자발적 퇴사율이 낮아지고 있어 임금상승 압력은 서서히 완화될 전망

미국 제조업 기업심리는 위축 국면이 지속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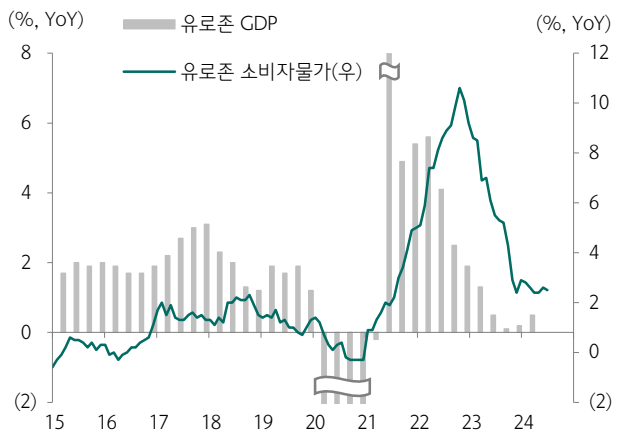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8/1): 49.0(E)/48.5(P)

한국 7월 수출(8/1): 15.4(E)/5.5(P)

- 미국 제조업 기업심리는 위축 국면이 지속될 듯
-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는 49.0P 기록할 듯. 미국 가계의 상품소비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어 신규주문과 생산의 유의미한 반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공산. 기업들의 구인 수요 약화로 고용도 위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제조업 기업심리는 부진할 전망
- 한국 7월 수출은 전년비 15.4%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가계 수요에 힘입어 화장품 수출도 양호한 수준 기록할 듯. 다만 자동차 등의 품목들이 전년도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업종별 차별화 흐름은 나타날 소지

유로존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겠으나 그 정도는 미미할 듯



유로존 2분기 GDP P(7/30): 0.5(E)/0.4(P)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 P(7/31): --(E)/2.5(P)

- 유로존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겠으나 그 정도는 미미할 듯
- 유로존 2분기 GDP는 전년비 0.5% 성장 예상. 유로존 성장률과 궤를 같이 하는 유로존 HCOB 종합 PMI 지수가 2분기동안 확장국면을 기록해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될 듯. 다만 고금리 여파로 내수 경기 회복이 제한되고 있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소지
-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는 소폭 둔화될 듯. 7월 브렌트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유로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지속될 전망. 다만 높은 임금상승률과 서비스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디스인플레이션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